하늘 맥을 잇는 사람, 끊는 사람

(민35:1~34)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맥을 잇는 사람, 끊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맥을 잇는 사람, 끊는 사람'

'맥을 잇는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종가 문화, 전통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도예가, 천년의 흥의 맥을 잇는 남사당패' 등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3대 남사당패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동포 짜기, 종묘제례악' 같은 무형문화재도 맥을 이어가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동포 짜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맥이 끊어지는 것이고 종묘제례악도 공연을 하면 누가 보기나 합니까? 그러므로 맥을 이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준은 전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봅니다. 요즘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살아있어도 뇌가 기능을 잃으면 뇌사로 봅니다만, 전

통적으로는 폐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심장이 박동하지 않아서 맥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과 도피성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정착하여 살 때에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레위인들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들은 토지를 분배받지 못합니다. 자기 소유의 아무런 기업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할당해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그 중에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레위인들만큼은 땅이 주어지지 않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열두지파의 기업들로 흩어져서 각 곳의 지파들로부터 성읍을 받아서 삶의 거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450m) 쯤 되는데 성벽의 크기가 보태져서 남북으로 동서로 길이가 900미터 플러스 성벽의 크기 정도의 목초지를 할당해서 그들도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꼭 구걸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비참해 보입니다.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 때에 사십팔 성읍을 할당하고 그 중에서 여섯 성읍은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읍과 서쪽에 세 개를 정해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연고자들의 복수의 손길로부터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기업도 못 받고 흩어져서 살면서 동정어린 손길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레위인이 자기 기업도 없이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전체 선민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 기업을 못 받는 것인데 나를 어떻게 위한다는 것입니까?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3대 절기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여호와 신앙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므온 지파인데 두개의 성읍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 시므온 지파의 일원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레위인들은 시므온 지파가 내는 십일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로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한 레위인은 시므온 지파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물심양면의 배려를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전념하므로, 시므온 지파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잇는 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사는 선민과 하늘을 잇는 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선민들과 하나님 사이에 맥이 끊기게 됩니다. 이 맥을 잇게 하시기 위해 레위인들을 흩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서 자기 기업 없이 오

직 하나님만을 향하며 선민과 연합되어 선민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맥을 이어 갈 때에 선민들에게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만을 유일한 일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레위인이 너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가 되면 물심양면의 배려가 필수적인 만큼 하늘과 이어지는 맥을 붙잡는 것이 삶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너희의 삶에서 그만큼 중요시 하겠는가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레위인을 흩으셨고 그들에게 피 같고 살 같은 기업을 떼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맥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맥이 끊겨버리는 것입니다. '맥이 끊긴다.'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맥은 가녀린 줄이 날카로운 칼에 싹둑 잘리듯이, 실제로 하늘과 선민을 잇는 그 맥도 그렇게 쉽게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을 흩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삶의 일부가 되어서 레위인들은 하늘만을 찾으면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과 하나님을 잇는 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맥을 이어주는 일에 물심양면의 배려를 하라는 것은 그것이 너희의 생명줄이고 선민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인데, 하늘과 맥이 끊어지면 선민이라는 탈을 쓴 사람만 남고 실제 선민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의 기능과 도피성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도피성'은 고의성 없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들판에 나가서 돌을 던졌는데 우연히 수풀 속에 앉아서 점심을 먹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혹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원망이 생기고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하는데 '의도적인 아니었다.'고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의도성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데 의도성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본래의 삶의 자리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고의성 없는 살인자의 죗값을 속해준다'는 의미인데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레위인과 도피성과 도피성에 들어가 살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삶으로 복귀 된다는 것이 다 연결되며 기가 막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의성 없는 살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살인은 하늘 맥을 끊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나와 하늘과의 맥을 이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민을 만나서 생활할 때에 그 선민에 대해 맥을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소원과 내 계획을 말하고 아내에 대한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아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했고, 아내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서 서로 좋은 뜻으로 말하고 신뢰했지만 여기서 맥이 끊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바람과 소원이 칼날로 작용을 하면서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내와 이어지는 하늘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여기에서 본의 아닌 살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지만 따먹었지만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은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므로 막연한데 하나님의 판단이 끊긴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게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 맥을 끊어버리므로 죽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신체가 죽는 것은 맥이 끊길 때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민의 생명은 하늘과 맥이 이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른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라며 시킵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반항하고 할 때에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자식에게 갖고 계시는 뜻은 내 뜻으로 인해서 끊어져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고의성 없이 일어나는 살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을 한 자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삶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하늘과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생각하다보면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늘의 맥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온전하게 성취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있고 나서야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고의성 없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내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맥이 끊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고의성 없는 살인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말씀들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과 하늘의 맥을 끊지 않게 됩니다. 이 맥이 끊

겨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손목의 동맥을 끊어서 시도하는 것처럼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면도칼에 대해 연약한 핏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맥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맥은 날카로운 면도날 앞에 있는 실핏줄 같이 가녀린 속수무책의 대상으로 하늘과의 맥은 너무너무 쉽게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수 없이 살인을 합니다. 나도 맥이 끊어진 상태이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수 없이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내 피 같고 살 같은 기업인 땅과 성읍들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레위인의 존재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부이면 내가 돈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닐 때에는 아깝지요. 레위인이 내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있어야 하늘과의 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인의 일과 동시에 대제사장의 일을 주님이 완성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늘과의 맥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동선이 유일한 맥입니다. 이 맥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늘과 이어지는 맥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하늘의 맥이 되셨고, 신약의 사도들은 레위인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 하늘 맥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해주는 일을 했던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의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물어라'라고 한다면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성서적이 아닌 것이죠. 땅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늘과의 맥이 끊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맥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장을 잘라내고 인공 장을 삽입하기도 하고, 핏줄을 잘라내고 인공 핏줄을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그 사람과 하늘의 맥을 이어주는 자일뿐 땅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땅의 문제의 해답을 물으려고 합니다. 직접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맡겨진 사람으로 이런 구조는 복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땅의 문제가 생긴 선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맥이 끊어졌음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승천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동선을 그 사람에게 삽입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맥을 찾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의 문제는 하나님과 둘이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지, 목사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끼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 안에 없는 신앙으로 십중팔구 발람의 뒤를 잇는 영성장사꾼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일을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야

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맥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문제 때문에 상담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와 내가 직접 너의 문제를 함께 의논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할 일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복음의 맥을 그들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살아가며 해결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도 만인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문제에 대해 상의할 수 있도록 권한과 가능성과 공간을 열어줄 뿐 내가 개입해서 내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계시나 꿈이나 응답을 받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과 하늘이 맺어져서 하나님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신이 신약으로 이어져 레위인의 역할을 주님이 완성하시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맥을 잇는 역할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그 사람의 하늘 맥을 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하늘 맥을 끊을 때에는 내가 하늘과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로부터 승천까지의 맥을 붙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하늘 맥을 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하늘과의 맥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맥을 잇게 해주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하늘 시민, 바른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